



해경 합정-日 측량선 제주해상서 대치

일본 측량선 서귀포 남동쪽 130km EEZ에서 해양 조사 제주해경 경비함정 출동 "조사 멈추고 회항하라" 요구 일본측 "정당한 조사"라며 외교 채널로 우리측에 항의



해경과 대치중인 日 측량선. 제주해경 제903함

제주 남동쪽 해상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일본 측량선이 이틀째 대치하고 있다.

1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 해경은 서귀포 남동쪽 130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 (昭洋)가 사전 동의 없이 해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경은 3000t급 경비함정 3003함과 3012함을 교대로 출동시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에 무선으

로 조사 활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경비함정은 '이곳은 한국 영해로 해양 과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사전 동의 없는) 측량 조사를 중단하고 귀국 해상으로 회항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제주해경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틀 낱인 12일까지도 제주해상에서 조사를 이어갔다. 해경 경비함정도 일본

전 동의 없이 조사에 나서 해경이 조사 중단을 촉구하며 대치하는 일이 있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자원의 목적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한국 해경의 조사 중단 요구를 받은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정당한 조사활동이라고 주장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우리 측의 조사 중단 요구는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인 경비활동"이라며 "이번 일로 양국이 충돌할 가능성은 없으며 극한의 대치 상황으로 보는 것도 무리다"라고 전했다.

긴급자동차 통행 특례 확대 중앙선 침범 등도 처벌 면해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는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 과속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이 허용되긴 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만 면책 특례가 인정되고 나머지의 경우엔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민식이법이 시행된 것도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개정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에 한해 9개 사항을 특례로 정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대희기자



5·16도로 교통통제 산지에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1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대설주의보 해제... 산간도로 한때 통제

기상청 "오늘부터 기온 오를 것"

12일 제주에 내리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오전 한때 눈이 쌓인 주요 산간도로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져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2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사이 제주에 내리던 대설주의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이면서 산간도로에선 교통통제가 잇따랐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1100도로에선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5·16도로와 제1산록도로에선 월

등장비를 갖춘 대형차량에 한해서만 운행이 허용됐다.

이밖에 한라로, 비자림로, 변영로, 첨단로에서도 월등장비를 갖춰야 운행이 가능했다.

한편 기상청은 13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제주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3~7℃, 낮 최고기온은 13~14℃로 전날에 비해 6~7℃ 높을 전망이다.

14일도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4~7℃, 낮 최고기온은 14~15℃로 예측됐다.

이상민기자

■ 제주경찰청, 경찰법 개정따라 조직개편 단행 국제범죄수사대 축소·광역순찰대 112로 이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12일 국제범죄수사대 조직을 축소하고 광역기동순찰대를 112로 이관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제주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을 1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국가경찰 사무를 자치·국가·수사 사무로 분리한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범죄수사대 조직 축소다.

경찰청은 외사과 산하에 있던 기존의 국제범죄수사대를 형사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한편, 마약범죄수사대 내의 국제범죄수사팀으로 조직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국제범죄수사대장 직급은 경정에서 경감(팀장)으로 변경됐다.

국제범죄수사대 인력도 조직개편에 맞춰 뿔뿔이 흩어졌다. 국제범죄

수사대 정원 13명 중 5명은 마약범죄수사대로 배치됐으며, 2명은 이번엔 신설되는 수사심의관으로, 3명은 안보수사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3명은 안보수사과로 재배치돼 산업기술 유출 수사를 담당하며 나머지 1명은 외사과에 잔류한다.

경찰 관계자는 "직제만 개편됐을 뿐 국제범죄수사대가 하던 수사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찰 인력도 재배치됐다. 제주경찰청 소속 생활안전계 경찰관 2명과 광역기동순찰대 33명은 112로 이관되며, 각 경찰서 생활계에서도 2명씩 총 6명이 112로 소속이 바뀐다.

아울러 경찰청 수사과 산하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옛 지능범죄수사대)에 인력 4명을 증원하고, 강력범죄수사대(옛 광역수사대)에도 3명을 보강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119상황실 하루 평균 526회 '따르릉'

작년 19만1900건 신고... 셋 중 한건꼴로 출동

지난해 제주도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에 하루 평균 52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 건수는 2019년에 비해 1만 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9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1만 2711건(6.2%)감소한 19만193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26건 가량 119상황실 벨이 울린 것이다.

신고 현황을 보면 의료 안내와 민원 상담을 내용으로 한 신고가 7만 3857건(3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장 출동 신고(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출동)가 6만4010건(33.3%)으로 뒤를 이었다. 무응답·오접속 등은 3만9437건(20.5%)으로 집계됐다.

오접속은 스마트폰의 긴급전화 버튼이 잘못 눌러 119에 신고된 사례 등을 말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신고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 예방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대희기자

가출 코드인된 청소년 성폭행 30대 징역 13년

청소년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30대에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화물차와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당시 16세)를 수차

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가두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나랑 같이 살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구슬려 가출을 하도록 만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납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탕자대목) 2022년 3월 납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산산 탕자대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으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모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대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랑, 아미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